

“우리는 하나”...열정·감동, V12 축제의 장



지난달 30일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V12 타이거즈 페스타'에서 KIA 선수단이 자리를 함께 한 팬들에게 감사의 세리머니를 전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팬들 성원 보답...뜨거웠던 V12 타이거즈 페스타

팬 사인회·우승 트로피 포토존 등 그날의 감동 다시한번 “우리들의 축제는 끝나지 않았다”...내년 시즌 선전 다짐

“뜨거운 열정과 감동이 함께한 축제의 장이 펼쳐졌다”

지난 11월 3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는 KIA 타이거즈의 붉은 열기로 가득 찼다. 2024 KBO 리그 통합 우승을 달성한 KIA 타이거즈 선수단이 팬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기 위해 마련한 'V12 타이거즈 페스타'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팬과 구단이 하나 되는 특별한 순간이었다.

이날 행사에는 선수단 전원과 5천여 명의 팬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페스타는 오후 5시 시작 전부터 팬들로

북적였으며, 팬 사인회와 우승 트로피 포토존 등 다양한 사전 이벤트가 큰 인기를 끌었다. 팬들은 직접 선수들을 만나며 기념사진을 찍고, 우승의 순간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페스타 본격 시작과 함께 이범호 감독, 양현종, 나성범 선수가 우승 트로피와 함께 입장하자 팬들의 함성은 김대중컨벤션센터를 가득 메웠다. 곧이어 선수단 전원도 무대에 올라와 팬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범호 감독은 “올해 팬들의 많은 응원이 있었기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며 “선수들이 오늘 페스타에서 많은 것을 준비했다.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상영된 하이라이트 영상에서는 올 시즌 치열했던 경기들과 우승의 감격적인 순간이 생생히 재현됐다.

팬들은 타이거즈 응원 머플러를 힘차게 흔들며 'V12'를 외쳤고, 그 순간 선수들과 팬들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선수들이 직접 준비한 '호랑이 가족 한마당'이었다. 장기자랑 코너에서 선수들의 색다른 매력을 볼 수 있었는데, '슈퍼스타' 김도영이 여장 차림으로 뉴진스 하니의 '푸른산호초'를 불러 현장을 웃음과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다. 또한, 흑백 호랑이(라이벌 게임 맞대결), 솟폼 콘텐츠 패러디 영상 상영 등으로 팬들에

게 웃음과 기쁨을 더했다.

페스타에 참석한 KIA 팬 김다훤(여수시 문수동) 씨는 “힘들게 티켓팅을 해서 왔는데, 우승의 기쁨을 선수들과 직접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이번 시즌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됐다”며 밝게 웃었다.

또, 이하린(장흥군 장흥읍) 씨는 “이렇게 멋진 행사를 마련해준 구단에 감사하다. 내년에도 우승 행진이 이어질 길 기대한다”며 성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번 페스타는 KIA 타이거즈의 2024년 통합 우승을 기념함과 동시에, 팬들과 구단의 끈끈한 유대감을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 선수들과 팬들은 “우리의 우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다가올 시즌의 선전을 다짐했다.

/주홍철 기자

이범호 KIA 감독 올해의 지도자상

한국체육기자연맹 선정



이범호(사진) KIA 타이거즈 감독이 한국체육기자연맹 선정 올해의 지도자상을 받는다.

한국체육기자연맹은 지난달 29일 “소속 체육기자들의 투표 결과 이범호 감독이 올해의 지도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며 “올해의 선수상은 수영 김우민에게 돌아갔다”고 발표했다.

올해 KIA 타이거즈를 정규시즌과 한국시리즈 통합 우승으로 이끈 이범호 감독은 사령탑 데뷔 첫 시즌에 특유의 '형님 리더십'으로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했다.

올해의 선수상을 받는 김우민은 파리 올림픽 수영 남자 자유형 400m에서 동메달을 획득했고, 10월 전국체육대회에서는 4관왕에 올랐다.

이범호 감독과 김우민에 대한 시상식은 오는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체육기자의 밤 행사 때 개최된다.

이 상은 2022년 홍명보(축구·지도자), 이상혁(육상·선수), 2023년 황선홍(축구·지도자), 안세영(탁구·선수)이 각각 수상했다.

/연합뉴스

'슈퍼스타' 김도영, 프로야구 선수·팬이 뽑은 2024 '최고의 선수'



1일 열린 2024 컴투스프로야구 리얼클럽 어워드에서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한 KIA 김도영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수협 시상식서 올해의 선수상·팬스 초이스 독식

김도영(21·KIA 타이거즈)이 '선수'와 '팬이 뽑은' 2024년 KBO리그 최고의 선수로 선정됐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는 1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2024 컴투스프로야구 리얼클럽 시상식'을 열었다.

이날도 주인공은 김도영이었다. 선수협은 지난 달 11일부터 13일까지 프로야구 선수 800여명을 대상으

로 온라인 투표를 했다. 또한, 팬들에게 투표에 참여할 기회도 줬다.

김도영은 동료들이 뽑은 '올해의 선수상'과 팬 투표로 선정한 '팬스 초이스'를 모두 수상했다.

김도영은 “투표해주신 동료들, 한국야구 팬들께 감사하다. 사람과 운동선수로, 모두 행동을 잘하겠다”며 “야구 인기가 높아진 올해에 이런 상을 받아서 더 기쁘다. 올해 성적이 안주

하지 않고, 매년 더 발전하는 선수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포지션별 수상자는 '수비'에 중점을 뒀다. 선발투수 양현종(KIA), 구원투수 김택연(두산), 포수 박동원(LG), 1루수 나승엽(롯데), 2루수 김선빈(KIA), 3루수 황재균(KT), 유격수 박찬호(KIA), 외야수 홍장기, 박해민(이상 LG), 정수빈(두산)이 포지션별 수상자로 뽑혔다.

박찬호와 김선빈은 베스트 키스톤에 선정됐다.

/연합뉴스

KIA, 2025 다문화가족 주말 야구체험캠프 개최

오늘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30명 참가 접수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주말 야구체험캠프 '2025 KIA 타이거즈 유스 베이스볼 캠프'를 개최한다.

KIA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광주, 전남·북 지역 다문화가족 자녀 3

0명을 대상으로 주말 야구체험캠프를 실시한다.

지난 3월 첫 번째 야구체험캠프에서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이끌어내 내년도도 뜻깊은 행사를 이어가게 됐다.

야구체험캠프는 내년 2월 3주간 총

세 차례 진행되며, 참가자는 합평 헬린저스필드의 선수단 훈련 시설에서 매주 1박2일로 야구를 배우게 된다.

주차별 프로그램은 야구 규칙 설명부터 기초 체력훈련, 수비훈련, 미니게임 등으로 구성되며, 마지막 3주차에는 자체 흥행전을 치른다.

흥행전에서 최우수 선수로 선정된

참가자는 홈경기 시구자로 초청된다. 참가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도 주어진다.

참가 신청은 구단 어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진다.

만 10세에서 19세의 광주, 전남·북 지역 다문화가족의 초·중·고등학생이 대상이며, 신청은 30명을 모집한다.

신청은 2일 오전 10시부터 11일까지이며, 30명 모집이 완료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주홍철 기자

KIA, 외인투수 라우어와 결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외국인 투수 에릭 라우어와 결별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024년도 소속 선수 중에서 구단이 재계약 의사를 밝힌 2025년 보류 선수 554명을 지난 달 30일 공시했다.

구단 별로 롯데가 60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KIA 59명, NC 57명, 삼성, LG, KT, 키움 55명, SSG, 한화 53명, 두산 52명이다. 이 가운데 KIA 명단에는 좌완 라우어가 포함되지 않았다.

KIA 관계자는 “라우어와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하면 된다”고 전했다.

지난 8월 월 크로우의 대체 선수로 입단한 라우어는 올 시즌 7경기에 등판해 34.2이닝 2승2패 평균자책점 4.03의 성적을 남겼다.

KIA는 통합 2연패를 위해 더욱 안



에릭 라우어 <KIA 타이거즈 제공>

정적이고, 경험 많은 외국인 투수를 모색할 예정이다.

올해까지 3시즌 활약한 외국인 타자 소크라테스 브리토와의 재계약은 고심 중이다. 소크라테스는 보류선수 명단에 포함됐다.

/주홍철 기자



양현종(오른쪽)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신임회장이 1일 리얼클럽 어워드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김현수 전임회장과 선수협 기를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팬 성원 보답할 방법 찾겠다”

KIA 에이스 양현종, 프로야구선수협회장 취임

'KIA 타이거즈의 심장' 양현종(36)이 2년 동안 프로야구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책을 맡는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는 1일 리얼클럽 어워드에서 연 뒤 정기총회를 개최해 13대 회장으로 양현종을 선출했다.

선수협은 프로야구 선수 820명(등록·육상·군 보류 선수 포함)을 대상으로 지난 달 20일부터 21일까지 회장 투표를 했다.

후보는 11대 회장을 맡았던 양의지(두산)와 12대 회장 김현수(LG)를 제외한 최근 5년 연봉 순위 상위 20명이었다.

양현종은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아 선수협 13대 회장에 뽑혔다. 양현종 신임회장은 2026년 겨울 정기총회까지 2년 동안 선수협을 이끈다.

취임식이 끝나고 만난 양현종 회장은 “11대 회장 양의지 선배, 전임 김현수 선배가 최선을 다해 선수협을 이끄는 모습을 봤다”며 “배턴을 이어받는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선배님들이 지켜온 자리에 흠집을 내지 않아야 한다는 부담감도 느낀다”고 말했다.

각종 현안에는 아직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양현종 회장은 “팬 서비스에는 ‘팬들께서 보내주시는 사랑에 어떻게 보답할지 생각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말했다.

양 회장은 “올해 KBO리그가 1천만 관중을 돌파했다. 우리 선수들 모두 팬들께 고마움을 느낀다”며 “이런 마음을 표현할 방법을 찾겠다. 팬 서비스에 는 우리가 더 신경 써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신지애, ISPS 호주오픈 우승

개인 통산 65승째

신지애가 호주여자프로골프 ISPS 호주오픈에서 우승했다.

신지애는 1일 호주 첼트넘의 킹스턴 히스 골프클럽(파73)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이글 2개와 버디 4개, 보기 3개, 더블보기 1개를 묶어 3언더파 70타를 쳤다. 최종 합계 17언더파 27타를 기록한 신지애는 2위 애슬리 부하이(남아프리카공화국)를 2타 차로 제치고 우승했다.

신지애는 2023년 6월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어스 몬다민컵 이후 1년 6개월 만에 다시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이 대회 우승 상금은 28만9천 호주달러(약 2억6천만원)다.

신지애는 2013년 이후 이 대회에서 11년 만에 패권을 탈환했고, 호주여자프로골프 승수를 5승으로 늘렸다. 또 개인 통산 65승을 달성했다.



1일 열린 ISPS 호주오픈 마지막 날 경기에서 우승을 확정지은 신지애가 두손을 번쩍 들며 기뻐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신지애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11승, 레이디스 유러피언투어 6승, JLPGA 투어 30승,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21승, 호주여자프로골프 5승을 거뒀고 지금은 사라진 레이디스 아시안투어에서도 한 차례 정상에 올랐다.

/연합뉴스